



#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인민을 이끄시여

새해 주제 100 (2011) 년의 장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펴놓은 심장에 받아안은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일어서 들어내는 드세찬 총공격전은 말그대로 백열전이다.

그것은 강성대국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서시여 인민을 이끄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도가 펼친 내 나라의 벅찬 현실이며 드높은 기상이다.

위대한 렇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저지 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견인불발의 의지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힘있게 밀고나가 혁명파 건설에서 대변혁, 대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땅의 방방곡곡에 거세하게 털진다.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

《선군조선의 장체한 그 불길을 그리고 출기차게 판통하고 있는 것은 범두산장군이 신경에 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공격정신이다.》

새해 공동사설의 구절이 시대의 진군카로 예아리고 있다.

《우리 당의 사상을 공격사상이며 당의 혁명방식도 공격방식이다.》

공동사설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울리며 그들을 오늘의 총공격전에로 힘차게 춤돌하고 있다.

총공격전!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과 본래가 세차계 맥박치는 글발을 되새길 수록 오늘의 대고조전군의 앞장에서 서시여 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겨 오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속이 삼삼히 어려와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준다.

20여개 단위!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해 1월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도 눈보라 강행군을 단행 하시며 찾고 찾은 만위수이다.

발전소건설장들과 야금기지, 대기계제작기지, 광산, 제련소, 페지광장, 수산기지, 식료공장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찾고 찾으신 하찮은 단위들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어이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맵짠 강추위를 끝내고 헤치신 멀고 먼 눈보라 강행군길은 그대로 그이의 투철한 공격정신으로 일관된 초강도 강행군길이다.

지난해 정초 평화 3 0°C를 오르내리는 모진 혹한속을 끌고 저 멀리 희원발전소건설장의 곳곳에 자속을 적으시며 대 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세차계 나래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새해 총공격전에 크나큰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

희원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전선시찰을 하신 것과 같은 혁사적인 현지지도이다. 그이의 그날의 현지지도자속에 그려도 그리도 힘차게 판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백두산장군의 투철한 공격정신이다.

치열한 전구인양 전설전투의 동을드높은 희원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며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건설장에 흐르는 물과 초기 그때로 비약과 혁신이고 이 절정의 도가니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끌립밀이 창조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노도처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라고 높이 치하하였다.

새해 청조 현지지도의 자속을 희원발전소건설장에 새기신 그날과 함께 물려주시며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이며 결연한 혁명의 전위부대인 단위들을 힘차게 판통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편승을 끝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새해 총공격전의 대오앞에 끌없이 새해를 초강도 강행군길이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철의 동계급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나지 고다져온 불굴의 정신력을 총동발시켜 대고조의 전렬에 풍물과 칠공같이 내달려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새해 청조 현지지도의 자속을 희원발전소건설장에 새기신 그날과 함께 물려주시며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이며 결연한 혁명의 전위부대인 단위들을 힘차게 판통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편승을 끝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새해 총공격전의 대오앞에 끌없이 새해를 초강도 강행군길이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쏟아지는 눈비를 헤치며 이어 가신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길은 몇 천 몇만리던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철의 동계급은 준엄한 혁명의

지에 새겨진 불멸의 화폭이 선히 안겨온다.

오늘도 대고조의 불길이 치솟는 철의 기지 김철을 우리 장군님께서는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두차례나 찾으셨으셨다.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김책체계를 합기업소를 찾고 찾으시며 불을 다루는 김철의

로동계급이 파감한 공격정신으로 혁사의 기적을 창조하도록 정력적

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속은 용운히 끝이치는 주홍빛 쇠물과 더불어 사람들의 가슴 뜨겁게 달구어준다.

주제길용광로에서 사포하며 쓰이는 쇠물을 보고 또 보시며 이것은

주제길생산체계의 완성이이며 자

립경제의 대승리라고 그리고 기뻐하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인민은 못 잊는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적본래

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우리의

로동계급이야말로 시대를 개척하고 혁명하는 위대한 선구자들이라고

않았는가 불러주시며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이며 결연한 혁명의 전위부대인 단위들을 힘차게 판통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편승을 끝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새해 총공격전의 대오앞에 끌없이

새해를 초강도 강행군길이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

철의 동계급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나지 고다져온 불굴의 정신

력을 총동발시켜 대고조의 전렬에

터득과 칠공같이 내달려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아버지 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이

땅이 하늘 아래 기어이 인민의 행

복이 더욱 꽂펴나고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송고 그 뜻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서시여 천민집의 고난과 시

련의 장마을을 헤치며 낮이나 밤이

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같은

현신의 자속을 이 땅에 아로새기시였다.

열세의 위인의 거룩한 자속과

더불어 대고조전군의 발구를 소리

드높은 철의 기지 김책체계를 합

기업소만이 아닌 이 땅의 방방곡

곡에 펼쳐진 격동적인 희폭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천만군민이

백두산장군의 공격정신이 야말로 편승의 보검이라는 철의 전리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더욱 새겨 주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질좋은 비날론옷감을 마련해 주시려고 저 멀리 비단본생산기지를 이를 사이에 두차례나 찾으셨다. 그 날은 김철우의 그길 우에 나래친 것은 백두산장군의 투철한 공격정신. 백두산장군의 초강도 강행군길이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우리 군민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대답한 공격전으로 돌파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혁사적위업으로 드세한 공격전으로 힘차게 벌어나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공을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비단본생산기지를 찾으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우리 군민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대답한 공격전으로 드세한 공격전으로 힘차게 벌어나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비단본생산기지를 찾으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우리 군민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대답한 공격전으로 드세한 공격전으로 힘차게 벌어나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인공지구워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발사와 제 2차 자하핵시험의

성과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의 국력과 편승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경애인 선구자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면서 힘차게 태운 창성파 대자연과 조선사업에 기적을 펼친 대개도간석지만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디에나 편히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다.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 (공동사설에서)

##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갈 한마음안고

### 평양밀가루가공장에서

평양밀가루가공장의 일군들과 동계급이 공동사설의 전투적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장을 돌아보니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해가 저무는 1월 2일의 찬비령부는 날에 또 다시 공장을 찾아주시었다. 최첨단수준에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여러 생산공정들에서 빙폭포, 파자폭포가 쏟아지는 홍광을 보고 또 보시며 우리 민족에게 질 좋은 밀가루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로는 일군들의 심장은 얼마나 크나큰 성과로 높뛰었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민생생활향상에서 자가들이 말았고 일부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피화려야 합니다.»

### 전천군지방공업장을

새해 공동사설의 전투적 파업을 꾸리는 실장마다에 새겨 앉은 전천군 일군들과 당원们, 근로자들이 지방원료와 유류자재를 가지고 갖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정착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이 자체로 살풀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하여서는 군의 자연자리적조건을 과거있게 리용하며 지방의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야 합니다.»

3중 3대 혁명붉은기 음료가공공장에서는 도토리, 머루, 대파 등 지난해에 따로 수십 틱의 산별로 인민들이 좋아하는 음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 머루, 대파, 단열재로 생활하는 갖가지 단물들은 평양시민들 속에서도 인기가 높다.

2중 3대 혁명붉은기 식료가공공장에서는 페퍼민트, 머루, 대파 등 지난해에 따로 수십 틱의 산별로 인민들이 좋아하는 음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 머루, 대파, 단열재로 생활하는 갖가지 단물들은 평양시민들 속에서도 인기가 높다.

다른 지방공업공장에서도

## 올해에 더 옥세 차게 지펴 올리자

### 농업근로자들, 너맹일군들과

### 녀맹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파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체계점기압소속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농업근로자들, 너맹일군들과 너맹원들의 편지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흑룡동지와 판례부문 일군들, 농군원, 너맹원군들, 농업근로자들, 너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려명길 농군맹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군맹농업근로자들에 대한 편지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편지에 편지가 땅독된다. 다음 결기모임은 7일 강서구역 청산리와 3대 혁명전시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흑룡동지와 판례부문 일군들, 농군원, 너맹원, 너맹원군들, 농업근로자들, 너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려명길 농군맹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워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력을 강화하여 벌려나갈데 대한 새해 공동사설과 김일의 호소는 나라의 살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 힘써 함께 고무주동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올해에 농업전선을 인민생활문화체계의 생명선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모든 농장들에서 포전별특성에 맞게 작물배치를 잘하고 나수학품종의 암곡작물들을 심으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

종제계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빠른 기일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질분석을 학회화수 있는 어려운 기술파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지난해 12월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훌륭히 개선하여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데 기여를 인정해 주시며 공장의 실력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기술로 파폐기생산을 위한 흐름식 공정을 완성하였고 설비도 해당 단위의 과학자들과 팀을 합쳐 우리의 기술로 제작하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종합대학을 증진성과로

빛내기 위하여 새해의 첫 전

투를 본때 있게 벌리고 있다. 짜

배기직장, 빵작장, 과자작장

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일군들

과 로동자들은 기술관리를 더

욱차고들면서 제제품의 질을 끌어내려나고 있다.

당의 응징속에 현대적인 식료품을 꺼내기로 전변된 공장에

서는 첫날부터 불리는 탐

구들이 열정을 깊이 벌여놓았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자제를

함께 천천히 생산공정의 통합조

김명근

### 회령식료가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제내리고 있었다.

모든 공정이 자동적으로 조종되는 풍나물생산현장은 또 어떤가. 기계실안에서 실하계 자라는 콩나물들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려워졌다.

돌아볼수록 공장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식료가공품도 손색없이 만들수 있게 꾸려져있었다.

빵, 에스키모, 떡국, 맥주생산공정의 현대적인 설비들마다에서 제품들이 줄줄이 흘러나온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흐름식 공정마다에서 생산되고 있는것이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산지형실에 들어선 우리는 또 한번 감탄했다. 커다란 콤퓨터화면을 통해 모든 생산현장들이 한눈에 보이고 CNC화가 실현된 맥주생산공정, 에스키모생산공정을 비롯한 중요한 생산공정들은 모두가 특색있고 질 또한 나무랄데 없었다. 이 모든 제품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정마다에서 생산되고 있는것이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럴수록 가슴을 뜯겁게 적서주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가는 곳마다 훌륭한 식료가공기지를 꾸려주시고 인민들이 하루빨리 그 덕을 보도록 하기 위해 거듭 배풀어주시는 장군님의 그로운 일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온정에 의하여 혁명적자제를 확장하는데 있어야 한다.

네 모반듯한 두부들이 밀차마다에 가득 실려나오는 두부생산공정과 김치생산공정, 산유, 오그르등 생활공정을 거쳐 우리는 국수생산현장에 들어섰다. 국수생산공정은 원료로 험, 성형 등

주제로 험하고 높은 질을 끌어내고 있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공업의 현대화를 달리 풀질을 세차게 지펴야 한다.»

온은히 울려오는 설비들의 힘을 끌어내고 있다.

당의 응징속에 현대적인 식료품을 꺼내기로 전변된 공장에

서는 경공업의 현대화를 그닥쳐야 한다.

네 모반듯한 두부들이 밀차마다에 가득 실려나오는 두부생산공정과 김치생산공정, 산유, 오그르등 생활공정을 거쳐 우리는 국수생산현장에 들어섰다. 국수생산공정은 원료로 험, 성형 등

주제로 험하고 높은 질을 끌어내고 있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식식료가공설비들마다에서 쉬임없이 쓸어지는 것과 함께 흐름식 공장을 표시하시였다.

«경찰이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해에 12월의 눈보라길을

# 장군님과 김철의녀성들

주제 철쇠물포로 통장훈을 부른 김철의로동계급과 함께 김철의 평범한 너성들을 은나라 사방하는 영웅적위훈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 김책체험회기업소 너성파의지원대

원들은 자나깨나 빙고싶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자기들의 일편단심을 담은 작품집 『장군님과 김철의 너성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또한 용광로속 같다  
그려나 누구 하나 쟁내는 이 없고  
오히려 희열에 넘치는  
장한 모습들이다

처녀시절이었던 21년전  
강철 2직장 보수전투때  
가슴 후련히 훌려보던  
그런 땀이었다

몇년만이었던가!  
나는 오늘 맞들이 체로 가슴 후련히  
무연알탄을 쳐쳤다  
한번 혼을 때마다 무연탄가루가 빠져  
나온다

땀이 흐르다 못해 옷을 적셔도  
땀을 모른다  
한쪽에서는 삶으로 퍼울리고  
우리는 채를 맞잡고 혼든다

바쁘게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이 하루도  
분초를 탈피해 달음쳐갔습니다  
남먼저 오른 출근길  
휘둘러온 길위에  
나의 발자국이 뚜렷이 찍히는데  
문득 가슴하는 생각

어제 저녁에는 우리 장군님  
자강도의 두레산촌에 계셨는데  
밤사이 눈길을 달려  
이 새벽엔

밀하리라 먼 후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 래일을  
위해

이 엄마는 로동파 기적과 혁신속에 살았  
다고  
아 금지하고 보람찬 나의 로동이며  
온 세상에 소리쳐 높이 자랑하리라  
나의 로동은 조국을 가꿔가는  
보람찬 삶이다!

잊지 못해 정들어  
너와 함께 달려온 그 나날들  
너의 자랑찬 로정속에  
나의 생도 영광도 있어

그 사랑속에 정들어  
꿈길에도 너를 그려보나니  
어제도 오늘도 너와 나는  
박동을 맞추고 있어라

너의 이름은 김철  
나의 이름은 김철의 강철전사  
그 부름속에 어려있어라  
백두산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이

보  
황하고 등근 보름달  
어이하여 우리 작업장 뜨지 못하나  
가는 걸 멈추고 웃고있는 저 달  
어이하여 우리 모두를 비쳐주고 있는가

류다른 출근길에 오른 너성들  
꽃다운 김철의 미더운 너성들  
환한 그 모습 비쳐주고 싶어  
가던 길 멈추더니

경애하는 장군님 높이 평가해주신  
경희회 『산울림』의 메아리처럼  
보수 2직장의 현명의 작은 울림이

여제도 오늘도 그 자리에 있으니  
하늘길 먼길을 언제 가려나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김철의 자랑 너성파의 지원대

그 장한 모습, 궁지 높은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고싶은게지

만나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  
하며 여터가지 조건부로 앞세우는것자  
체가 진정성있는 태도라고 할수 없다.

북파 남이 미주앉아 속을 터놓고 허

실험회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북남판례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

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

을 타개하고 북남판례를 개선하며 평

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

한 애국결단의 중대제안을 담은 협정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 협정에서는 남조선당국을 포함

하여 정당, 단체들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면서 협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파지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나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허

심한 회하게 협의해결해 나갈것이라는데

대 천명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협정에서 제시된 중대

제안이 조선반도경장을 확화하고 위기

에 처한 북남판례를 구원하며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잊고 평화와 통일의 원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애국애족

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인정하면

서 이를 온 거래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협정에서

지금 북파 남, 해외의 전체 조선

으로 될 것이다.

세 해 공동사업의 전통적 파업

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

안은 개성시 일군들과 근로

자들이 령도업적 단위 농장들

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이 크

게 내밀고 있다.

시인의 기관, 기업 소일군

들과 근로자들은 세 해 전후

의 첫 날 자동차와 브로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진전

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동

원하여 3 5 0 0여의 각

종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령

도 업적 단위 농장들에 보내

주었다.

## 농촌을 적극 지원 개성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형도자와 함께 다듬어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농촌에 전당적,

전국적인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진전

을 이루어야 한다.』

시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농촌지원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공동사업

면서 농사비리를 다그치고 있는

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들은

여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혁명적예술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 한 경 복 도 예 술 단 에 서

위 대 한 형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선군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우리의 예술이 기수기 되고 나갈수기 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때 대한 울해공동사설을 펴지는 심장마다에 받아인은 함경북도에 솔단의 창작가, 예술

그 날의 약속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방의 아금기지 김책체 철련 학기임소를 찾으으서 새해 전투의 불길을 지펴나고 있다.

새해 진군길에 떨쳐나선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가슴은 지난해 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린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어 고 있으며 올해에도 혁명적예술집단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해 각 높은 열위에 넘쳐있다.

짓지 않으시고

《회령의 봄》이 장내에 울려피쳤을 때에는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던 위대한 장군님.

종목들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박수를 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북도에 솔단의 너성독창과 판현악연주가 수준이 있다는 깊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공연을 다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북도에 솔단 예술인들이 사상에 출성이 높은 가수들이나 가수들이나 소박한 자기들의 공연을 잘 한다는데 앞으로 꼭 보아주겠다고 다시금 뜻겁게 말씀하시였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날의 약속을 지지 않으시고 지난해 12월, 함경남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여 함경북도에 솔단의 공연을 보아주셨다.

너성 3중창 《만경대의 노래》가 무대에 오를 때에는 온갖 꽃 만발하는 4월의 봄, 만경대를 그려보는가 조용히 미소를 짓기도 하시고 너성민요로 창조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리여 있다.

1970년대에 함경북도에 솔단에서 준비한 미숙한 가곡들을 보아주시고 친히 제독까지 고쳐주시며 그 수정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가드쳐 주신 어버이수령님.

때로는 중앙의 예술인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각각 창조에 필요한 기재들을 사랑의 비행기에 실어 헌시라도 빨리 가당도록 하여주신 그 은정속에 혁명가곡 《두만강반의 아침노을》과 가곡 《월에 대한 이야기》가로등 당시대의

명작으로 터여 날수 있었다.

박홍석, 실장 리종석 등무를 비롯한 오랜 예술인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 섰다.

당의 품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풋고자 자란 새 세대들이 로세대들과 지혜와 정열을 합치며 예술창조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해나갔다.

그 나날 위대한 우리 당을 한생토록 반듯이 할 힘복도에 솔단에 창작가, 예술인들의 신념의 행세는 더욱 양적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혁명적예술집단으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올수 있었다.

조선문학예술에

황해남도위원회에서 새

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사업을 훨씬히

판찰하기 위해 펼쳐나

선 천만군민의 심장에

투정의 불, 애국의 불을

다는 명작들을 창작하

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고 있다.

조선인 종목들에 출연한 배우들은 모두가 신인배우들이다. 연출가

자경수, 성악배우들인 리금주,

제영애 등무들과 가수 《전선길의 빠꾸새》를 훌륭히 형상화한 배우들,

그들만이 아니었다.

조선인 불리 한 속에서도 예술

인들의 기량려원과 생활에 필

요한 흥미를 찾을 수 있었던

후방부분 일군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하거늘 어찌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한편 한편의 작품들이

창작가, 예술인들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라.

그것은 정녕 시대의 앞장에

예술인들을 내세워주며 드러운

사랑을 알겨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끌까지 끌어들이는

모두가 예술창조사업을

더워 분에 있게 벌려나갔다.

한경북도에 솔단의 전제 창작가,

예술인들은 올해에도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한 시대의 결착,

사회주의 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으로써

선군시대나 광복후로서의 영에로

일관 행해하였다.

혁명가곡 《두만강반의 아침노을》을 무대에 올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던 부단장

본사기자 방경찬

박홍석, 실장 리종석 등무를 비롯한 오랜 예술인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 섰다.

당의 품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풋고자 자란 새 세대들이 로세대들과 지혜와 정열을 합치며 예술창조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해나갔다.

박홍석, 실장 리종석 등무를 비롯한 오랜 예술인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 섰다.

당의 품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풋고자 자란 새 세대들이 로세대들과 지혜와 정열을 합치며 예술창조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해나갔다.

조선문학예술에

황해남도위원회에서 새

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사업을 훨씬히

판찰하기 위해 펼쳐나

선 천만군민의 심장에

투정의 불, 애국의 불을

다는 명작들을 창작하

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고 있다.

조선인 불리 한 속에서도 예술

인들의 기량려원과 생활에 필

요한 흥미를 찾을 수 있었던

후방부분 일군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터져나왔다.

하거늘 어찌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한편 한편의 작품들이

창작가, 예술인들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라.

그것은 정녕 시대의 앞장에

예술인들을 내세워주며 드러운

사랑을 알겨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끌까지 끌어들이는

모두가 예술창조사업을

더워 분에 있게 벌려나갔다.

한경북도에 솔단의 전제 창작가,

예술인들은 올해에도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한 시대의 결착,

사회주의 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으로써

선군시대나 광복후로서의 영에로

일관 행해하였다.

혁명가곡 《두만강반의 아침노을》을 무대에 올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던 부단장

본사기자 방경찬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황해남도위원회에서

『반장의 달력』과 태란군기동에 솔선동대에서 자기 단위의 특성을 잘 살펴 만든 여러 작품들도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인식교양적 의의로 큰 작품들이다.

이곳 미술가동맹위원회에서는 많은 미술작품들을 훌륭히 창작 활동하여 세간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 주변에 있는 여러 협동동창회, 6·5 육군전선, 전국인민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맹의 작곡가들은 영양리를 비롯하여 지난해에 전개된 조선인 미술작품발표회에 출품하였다.

미술가동맹의 미술가들, 음악가동

# 천 출위인의 위대한 업적에 탄복하여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김정일각께서는 타월한 사상과 혼란활동으로 주체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계화하고 그것을 더 우발전 풍부화 하심으로써 인류사상에서 특기 할 기여를 하시였다. 김정일각께서는 사상과 리론의 타월한 영재로서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를 해아리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전략을 내놓으신지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근로자들의 학원으로 세계국주의 침략과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민족독립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의 유일한 모범으로 전변시키는 기적을 이루 하시였다.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고 계시는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이어가며 전해가야 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이것은 수리아작가이며 변호사였던 쑤해일 아유비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쓴 도서 『동방의 영재』의 한 구절이다.

그는 린종을 앞두고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책은 나의 한생의 총화라고도 말할수 있다. 내가 일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른분은 김정일각 하시이다. 나는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고 계시는 위대한 업적을 우리 수리아인민과 세계인민들에게 알려주며 만대에 걸친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

어서 나는 이 책을 썼다. 함께 가서 김정일각하를 만나뵙고 이 책을 삼아 올리자고 했는데 나는 가지 못할 것 같다. 조선에 가면 그이께 나의 인사도 함께 드려주기 바란다.』

쑤해일 아유비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국제적 조류에 합류하여 수리아에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에 앞장서온 사람이다.

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크게 탄복하게 된 것은 그이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탐독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주체 7년 (1982)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받았고 격동된 심정을 글자마다 풀어내면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흡모하며 칭송하여 쓴 많은 도서들을 번역 출판하였다.

어느해인가 쑤해일 아유비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의 흡모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여려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회되거나 자본주의가 북극되고 면면에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위협에 단호히 맞서 나가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주체사상과 서해 갑문, 평양 산원, 만평 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고나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건설을 이룩한 성과는 모두 김정일각 하께서 위대한 김정성주석의 위업의 타월한 계승자로서 날에 밤을 이어 도서 『동방의 영재』를 삼아

의 동료인 수리아의 한 출판사장 아리브 뚜박자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그이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도서들을 아랍어로 번역 출판하기 위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그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칭송하는 도서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현시대와 김정일비서』, 시집 『세계를 비치는 태양』 등 세계 전보적인 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흡모하며 칭송하여 쓴 많은 도서들을 번역 출판하였다.

어느해인가 쑤해일 아유비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의 흡모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여려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회되거나 자본주의가 북극되고 면면에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위협에 단호히 맞서 나가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주체사상과 서해 갑문, 평양 산원, 만평 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고나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건설을 이룩한 성과는 모두 김정일각 하께서 위대한 김정성주석의 위업의 타월한 계승자로서 날에 밤을 이어 도서 『동방의 영재』를 삼아

정직적으로 벌려시는 활동과 거대한 노력과 헌신되었다. 그이의 타월한 정도, 비범한 고전적 저작들과 그이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도서들을 아랍어로 번역 출판하기 위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그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칭송하는 도서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현시대와 김정일비서』, 시집 『세계를 비치는 태양』 등 세계 전보적인 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흡모하며 칭송하여 쓴 많은 도서들을 번역 출판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우리 나라의 벽화 현장을 접할수록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이 훌륭히 칭송하면서 둘러 우러 놓았고 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고 싶은 충동을 끌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너무도 한 일이 없는 자신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번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고 싶은 충동을 끌어낼 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토의 마음을 안고서 그이를 만나뵙겠다고 절절하게 이야기하였다.

20여일간의 조선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도서집필에 자기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쓸어버렸다. 당시 그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의 동료인 아리브 뚜박자는 쑤해일 아유비의 병세를 걱정하며 병치료를 위해 후에 책을 쓸 것을 어려워 했고 그때마다 쑤해일 아유비는 『이 일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로 될 것이다. 도서집필이 끝나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진 고통을 참아가며 도서집필에 전심 전력을 기울였다. 그 이후에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한생을 글과 함께 작품들을 창작하고 도서들을 진필하여 발행하고 있다.

새 세기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절세의 위인이나이에게는 김정일 동지를 차주시대의 타월한 정도자로,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보인 것은 세계 전보적인 인류의 최대의 행운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한없이 흡모하고 우러 놓았던 시대의 대하는 날로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본사기자 조성철

로씨야전략로케트군의 미싸일발사계획

로씨야전략로케트군이 올해 10차에 걸쳐 각이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12M』(또 블록 간단도미사일과 『PC-18』 대륙간단도미사일, 『PC-24』 대륙간단도미사일로 쇼야전략로케트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이와 함께 전망성 있는 미싸일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의 태두리안에서의 시험 발사와 현재 전투근무중에 있는 미싸일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전투호환발사도 진행되게 된다.

이 기간 연 285만 29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전민의 무식수 활동에 참가하였다.

이 중 국내 통물자차구에서 지난해 6 500km의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차지구의 자동차로 총 길이는 15만

대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 3대륙민족기구에서 진행 행사는 알폰쏘 프라가 빠레스 아시아아프리카리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와 성원들, 권승철 꾸비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새해에 즐음하여 3월 아시아아프리카리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었다.

# 걸출한녀성혁명가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넷 특집, 글재재

한일의 여성용 김정숙동지의 태양 9 3회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들과 인터넷 홍보지가 지난해 1 2월 1 9일부터 2 5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기념글을 올리었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드』는 맥 두산녀장군의 영상을 보시고 『위대한 한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신문은 세계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출한 나성혁명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 하시여 여덟 가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께서 항일의 나날 아동 단원들의 천이가 되시되 그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나고나갈 일군으로 자라도록 온갖 친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파크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김정숙동지께서 해방 후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세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외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참으로 그이의 생애는 김정숙동지에게 바치신 충정의 한생, 혁명의 대를 이어놓으신 위대한 한생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도 인터넷 홍보지에서 온갖 친절을 기울여 바라시던 미래가 현실로 꽂쳐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신문 『비베 메일』은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시던 노력을 위하여 조선은 짧은 기간에 튼튼한 교육로대를 마련하였다.

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가르야』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민 1 1년제 무교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이 모든 것은 조선에서 인공지구 위성을 두차례나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자체로 개발한 CNC 기술에 의기하여 경제전반에서 최첨단을 들파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결을 낳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출한 나성혁명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 하시여 여덟 가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께서 항일의 나날 아동 단원들의 천이가 되시되 그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나고나갈 일군으로 자라도록 온갖 친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파크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김정숙동지께서 해방 후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세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외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참으로 그이의 생애는 김정숙동지에게 바치신 충정의 한생, 혁명의 대를 이어놓으신 위대한 한생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도 인터넷 홍보지에서 온갖 친절을 기울여 바라시던 미래가 현실로 꽂쳐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신문 『비베 메일』은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시던 노력을 위하여 조선은 짧은 기간에 튼튼한 교육로대를 마련하였다.

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가르야』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민 1 1년제 무교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이 모든 것은 조선에서 인공지구 위성을 두차례나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자체로 개발한 CNC 기술에 의기하여 경제전반에서 최첨단을 들파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결을 낳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출한 나성혁명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 하시여 여덟 가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께서 항일의 나날 아동 단원들의 천이가 되시되 그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나고나갈 일군으로 자라도록 온갖 친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파크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김정숙동지께서 해방 후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세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외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참으로 그이의 생애는 김정숙동지에게 바치신 충정의 한생, 혁명의 대를 이어놓으신 위대한 한생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도 인터넷 홍보지에서 온갖 친절을 기울여 바라시던 미래가 현실로 꽂쳐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신문 『비베 메일』은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시던 노력을 위하여 조선은 짧은 기간에 튼튼한 교육로대를 마련하였다.

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가르야』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민 1 1년제 무교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이 모든 것은 조선에서 인공지구 위성을 두차례나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자체로 개발한 CNC 기술에 의기하여 경제전반에서 최첨단을 들파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결을 낳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출한 나성혁명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 하시여 여덟 가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께서 항일의 나날 아동 단원들의 천이가 되시되 그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나고나갈 일군으로 자라도록 온갖 친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파크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김정숙동지께서 해방 후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세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외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참으로 그이의 생애는 김정숙동지에게 바치신 충정의 한생, 혁명의 대를 이어놓으신 위대한 한생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도 인터넷 홍보지에서 온갖 친절을 기울여 바라시던 미래가 현실로 꽂쳐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신문 『비베 메일』은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시던 노력을 위하여 조선은 짧은 기간에 튼튼한 교육로대를 마련하였다.

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가르야』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민 1 1년제 무교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이 모든 것은 조선에서 인공지구 위성을 두차례나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자체로 개발한 CNC 기술에 의기하여 경제전반에서 최첨단을 들파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결을 낳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출한 나성혁명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 하시여 여덟 가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께서 항일의 나날 아동 단원들의 천이가 되시되 그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나고나갈 일군으로 자라도록 온갖 친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파크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김정숙동지께서 해방 후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세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외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참으로 그이의 생애는 김정숙동지에게 바치신 충정의 한생, 혁명의 대를 이어놓으신 위대한 한생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도 인터넷 홍보지에서 온갖 친절을 기울여 바라시던 미래가 현실로 꽂쳐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신문 『비베 메일』은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시던 노력을 위하여 조선은 짧은 기간에 튼튼한 교육로대를 마련하였다.

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가르야』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민 1 1년제 무교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신문은 이 모든 것은 조선에서 인공지구 위성을 두차례나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자체로 개발한 CNC 기술에 의기하여 경제전반에서 최첨단을 들파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결을 낳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출한 나성혁명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 하시여 여덟 가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께서 항일의 나날 아동 단원들의 천이가 되시되 그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나고나갈 일군으로 자라도록 온갖 친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파크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김정숙동지께서 해방 후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세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외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참으로 그이의 생애는 김정숙동지에게 바치신 충정의 한생, 혁명의 대를 이어놓으신 위대한 한생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 위원회도 인터넷 홍보지에서 온갖 친절을 기울여 바라시던 미래가 현실로 꽂쳐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신문 『비베 메일』은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시던 노력을 위하여 조선은 짧은 기간에 튼튼한 교육로대를 마련하였다.

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